

# 우리가 몰랐던 3×4의 비밀

- 이력서 사진 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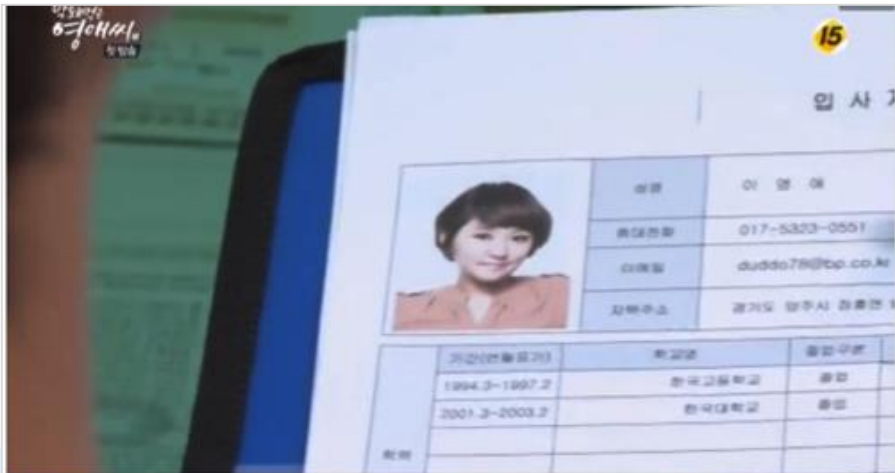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지음

대표카페 : <http://cafe.naver.com/goodlab>

이메일 : [good@jobkorea.co.kr](mailto:good@jobkorea.co.kr)

※ 본 자료는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편집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담당자의 90%가 면접 보러 온 지원자의 실제 모습과 이력서 사진의 모습이 달랐던 경험을 해봤다고 답했다. 심지어 49.5%는 ‘매우 달랐다’며 알아보지 못했던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태는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사진과 많이 다르  
시네요...

...



출처: 케이블방송 tvN '막돼먹은 영애씨 12'



연예인 증명사진으로  
'이력서 사진'에 대해  
고민 해보자!



- 훌륭한 외모도 정상까지 커버하지는 못한다
- 잘 생겨도 무표정 은 험악한 분위기가 된다
- 눈을 가리는 앞머리는 뭔가 감추는 것 같다
- 잔머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단정치 않아 보인다
- 얼굴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배경색은 파랑 계열이다
- 액세서리를 하면 그 곳에 시선이 간다
- 목 끝까지 여미는 옷차림은 답답한 인상을 준다
- 인사담당자는 컬러렌즈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다
- 내린 긴 머리가 잘려있는 것만큼 이상한 사진도 없다
- 치아가 살짝 보이도록 웃는 표정은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인사담당자 92%

# “지원자의 이력서 사진이 ‘첫인상’으로 남았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기업 인사담당자 210명과 ‘이력서 사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이력서 사진 모델로는 좋은일 연구소 끝장단 1기 이현진 양과 연구소 고맙소(닉네임) 군이 참여했고, 좋은일 사진관에서 찍은 각 컨셉별 사진으로 인사담당자들에게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고 싶은가?”를 조사했다.

W



M



## CONTENTS

- 01 메이크업
- 02 의상
- 03 헤어스타일
- 04 표정
- 05 사진보정
- 06 ETC..

모델 분께는 미안하지만,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NO 메이크업 NO 헤어스타일 컷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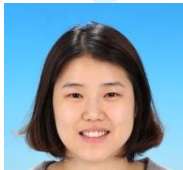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관  
good.jobkorea.co.kr/Photo  
[일정보기 \[클릭\]](#)

##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보이는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을 위해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대학생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력서 사진촬영에 완벽한 메이크업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보이는 정도면 충분하다. 메이크업으로 개성을 표현한다며 강한 아이라인이나 짙은 컬러 메이크업, 홍조를 넘어서 볼 터치를 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있으나 이는 이력서 사진에 부적합하다. 특히 언더라인에 펄 라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메이크업이 번지거나 사진촬영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며, 피부 광택이나 번들거리는 느낌의 립메이크업도 좋지 않다. 강한 조명아래 사진촬영이 되므로 메이크업은 다소 매트한 느낌에 눈매만 또렷한 수준이 적당하다. 남성의 메이크업은 피부정리 수준이 적당하다. 피부관리와 눈썹정리만 잘해도 정돈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이 남성 모델 분은 심지어 젊.어.졌.다..

**메이크업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메이크업 안 함

4.3%



메이크업 함

95.7%



메이크업 과하게 함

0%



메이크업 안 함

3.2%



메이크업 함

96.8%



## 얼굴형 보완해주는 네크라인 선택

여성의 의상은 수트의 네크라인으로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둥근 얼굴형에는 V자형 네크라인이 얼굴형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이며, 긴 얼굴형은 목선까지 올라오는 네크라인이나 일자형이, 각진 얼굴형이나 역삼각형은 U자형이나 보트넥이 효과적이다. 블라우스나 원피스 보다는 자켓을 입는 것이 한층 정돈된 인상을 준다. 인사담당자들은 평상복(2.9%)보다는 수트(97.1%)를, 화려한색(6.5%) 보다는 차분한색(90.4%)을 택했다. 차분한 색상 중에는 검정색(43.3%)보다 짙은 남색(47.1%)을 택한 인사담당자가 많았다.

**의상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수트 아님  
2.9%



차분한색/남색  
47.1%











화려한색/액세서리함  
6.5%



차분한색/검정색  
43.3%

**BEST**

**WORST**

	V넥		목끝라인		U넥		보트넥
	U넥		U넥		V넥		V넥

둥근 얼굴형

긴 얼굴형

각진 얼굴형

역삼각형 얼굴형

## 액세서리 없는 스타일이 최고!

남성의 수트 색상은 차분한 색상을 택하며 검정색 보다는 짙은 남색 수트가 적당하다. 셔츠는 단색의 무늬 없는 흰색 셔츠를 입는 것이 표준 스타일이며, 컬러 셔츠의 경우 푸른색 계열 정도가 적당하다.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는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업에 따라 선호하지 않기도 한다. 넥타이는 차분한 계열이면 적당하다. 넥타이로 시선이 가는 화려한 넥타이는 좋지 않다. 인사담당자들은 평상복(0.5%)보다는 정장(99.5%)을 택했고, 목걸이나 콧수염, 안경 등 액세서리를 착용한 스타일 보다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스타일(61.9%)을 선호했다.

**의상**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수트 아님  
0.5%



안경 착용  
29.0%



액세서리 착용 안 함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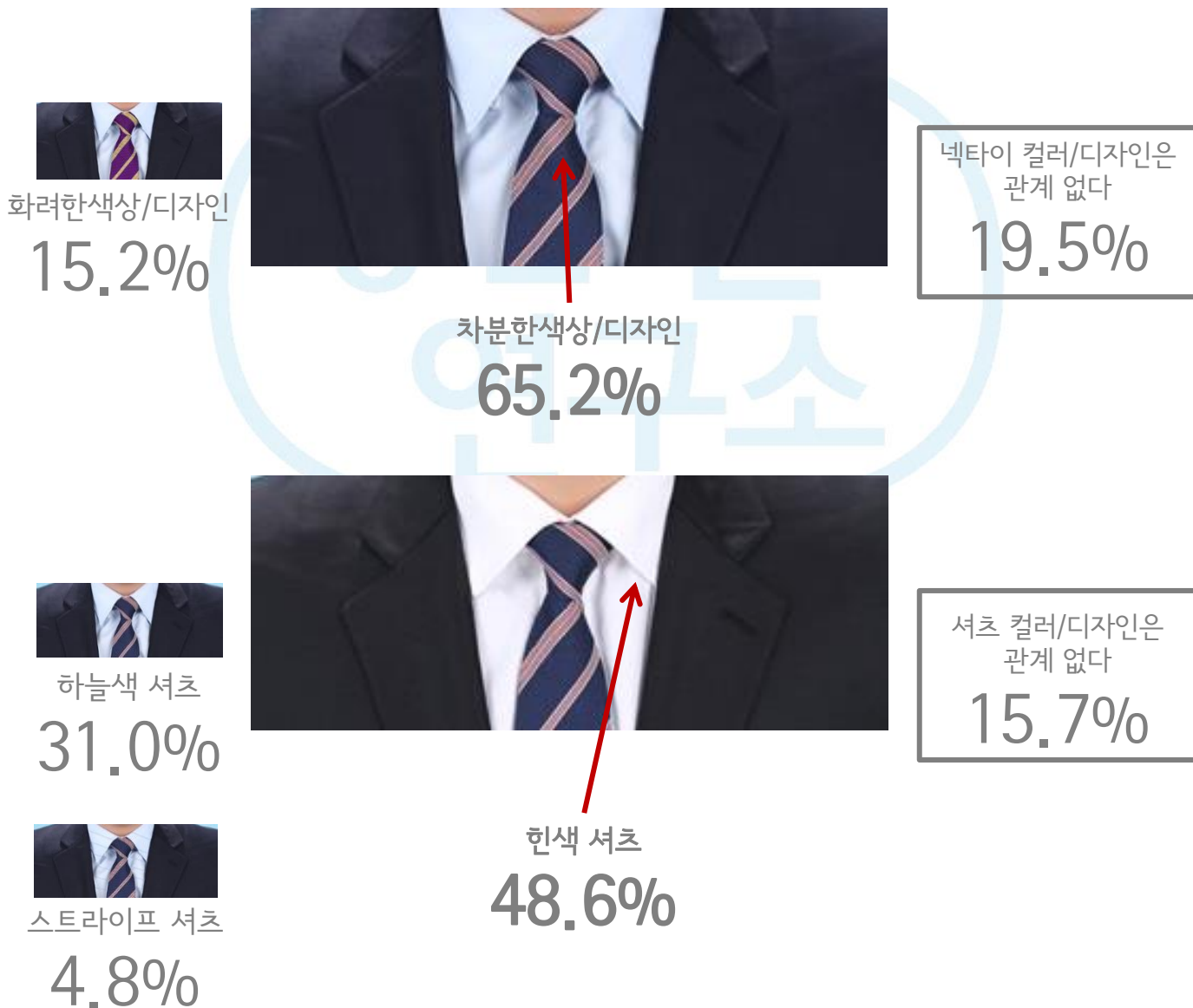


콧수염 있음  
8.6%

## 넥타이 & 셔츠로 개성 표현 ? NG !

실제 인사담당자들도 이력서 사진의 넥타이 색상이나 디자인(80.5%), 셔츠 색상(84.3%)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넥타이는 차분한 색상과 디자인(65.2%)이 화려한 것(15.2%) 을 택한 인사담당자가 많았고, 셔츠는 무늬 없는 흰색(48.6%)을 선택한 인사담당자가 하늘색(31.0%)이나 스트라이프(4.8%) 보다 많았다.

**넥타이·셔츠**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 사무적이고 단정하면 돼!

잔머리가 많이 나올수록 보는 이의 시선이 분산되어 지원자의 첫인상 인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올림머리(승무원 헤어스타일)로 이마와 귀를 노출하는 것은 사무적인 인상을 주지만 평소 하지 않던 스타일이 영 어색하다면 최대한 사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리된 모습을 연출하자. 단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많이 가릴수록 소극적이거나 무언가 감추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앞머리로 이마를 많이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여권사진처럼 이목구비가 모두 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지만, 눈과 눈썹 등 이목구비가 모두 보이는 사진이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인다.

### 헤어스타일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반 묶음

3.3%



어깨라인 내림

49.0%



앞머리 내림

23.8%



승무원 헤어스타일

23.8%



앞머리 내림

3.3%



앞머리 올림

96.7%

## 자연스럽고 당당한 표정으로

보일 듯 말듯 미소를 띠는 표정이 이력서 사진의 표준인 시절이 있었다. 요즘은 치아 4개정도 보일 만큼의 작은 웃음이 이력서 사진으로 인기가 높다. 조금 더 자신감 넘쳐 보이기 때문이다. 이력서 사진 찍기 전에 거울을 보고 스스로 연습해보자. 미소, 작은 웃음, 큰 웃음 중에 어떤 표정이 가장 자연스럽게 당당해 보이는지.

### 표정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무표정

2.4%



미소

32.9%



작은 웃음

59.0%



큰 웃음

5.7%



무표정

1.9%



미소

24.3%



작은 웃음

64.8%



큰 웃음

9.0%

## 눈 키워주나요? 턱 깎아주나요?

무료로 이력서 사진을 찍어주는 좋은일 사진관 대표는 이력서 사진 찍으러 오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눈 키워주세요’, ‘턱 깎아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들이 선택한 사진보정의 단계는 ‘피부보정’ 수준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의 경우 피부보정도 아닌, 실제 모습을 선호하는 인사담당자도 꽤 있었다.

### 사진보정 Q.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겠습니까?



보정 안 함

28.6%

대기업 (44.4%)



피부보정

48.1%



윤곽보정 1단계

20.5%



윤곽보정 2단계

2.9%



보정 안 함

29.5%

대기업 (29.6%)



피부보정

50.5%



윤곽보정 1단계

17.6%



윤곽보정 2단계

2.4%

## 바른 자세는 얼굴도 작아지게 한다!



**바른 자세**는 얼굴도 작아 보이게 한다. 허리와 어깨를 펴고  
바르게 앉아 턱을 아래로 조금 당기면 이목구비가 살아나는 효  
과를 낼 수 있다.

**이력서 사진 사이즈**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반명함 사이즈가 많으나, 이력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기업의 경우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이즈로 파일을 늘이거나 줄여 해상도가 떨어지는 왜곡된 사진으로 입사지원 할 경우 성의  
없어 보인다. **이미지 프로그램(포토샵 등)을 통해 사이즈를 맞춰 입사지원** 하자.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요구하나, **최소한 계절은 맞추자**. 겨울 채용에 여름 수트 입은 사진으로 지원하거나, 여름  
채용에 겨울 수트 입은 사진으로 지원할 경우 성의 없어 보여 입사의지도 낮아 보인다.

**서비스업계 지원할 때 등** 서류전형에서 이력서 사진이 채용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높진 않다. 그러나 서  
비스업종의 경우 지원자의 이미지(인상)를 간과하긴 어렵다. 업계 전문가는 “이력서 사진이 **평가요소는 아니나 직관적인 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력서 사진은 ‘성의’ - 취업 전문가 조언** 한 대기업 임원은 “지원자들의 사진이 천편일률적이긴 하지만  
**막상 그런 모습이 없다면 다른 사람 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성의나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며 “출중한 외모가  
아닌 ‘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명 헤드헌터도 “평가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사회성이 떨어진  
다’거나 ‘자기관리가 없어 보인다’는 등의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본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 BEST CUT



JOBKOREA

※ 본 자료는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편집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JOBKOREA°**  **좋은일 연구소**

감사합니다.